

중학교 가정 교과 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 '가족생활' 영역의 중복성 분석 -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엘리* · 유난숙**¹⁾ · 채정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졸업*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한국교원대학교***

The analyses of duplicated contents of 'Family life' unit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

Kim, Elli* · Yu, Nan Sook**¹⁾ · Chae, Jung Hyun***

*Alumna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duplicated contents of 'family life' unit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It focused on the 'family life' area in the home economics textbook compiled following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textbooks of other subjects compiled in the same peri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Home economics I · II」, 「Ethics I · II」, 「Social studies I · II」, 「Science I · II · III」, and 「Physical educa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ntents in 'family life' area of 「Home economics I · II」 were overlapped most in the textbook on Ethics, and then Science, Physical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in order. In Ethics textbook the contents in family life area and those throughout the whole chapters of home economics textbook are overlapped most.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textbook are overlapped at the content of 'Juvenile's sexual development' of 'Human development process' in science and physical education, and at the content of 'Juvenile's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in social studies.

Seen from this study the 'family life' area of home economics is overlapped in science, physical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but, home economics has comprehensive contents with the goal of managing healthy individual and family life compared with other subjects, and it induces students' moral practices in their real life on the basis of

1) 교신저자: Yu, Nan Sook, Yongbong-ro 77, Buk-gu, Gwangju, 500-797,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scientific knowledge different from morality, social studies, and physical education. Hence, the instruction of 'family life' area might be done more effectively by focusing on home economics and integrating the connections of duplicated contents in Ethics, Science, Physical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Key words: 가족생활(family life), 교과서 분석(textbook analysis), 중복성 분석(duplicated contents), 가정과 교육과정(Home Economics Curriculum)

I. 서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 기술, 학문이 융합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김진수, 2012), 융합교육을 위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적인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백운수 외, 20012).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도 '2011년 업무계획보고'에서 융합교육의 뜻을 밝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2014년 9월 24일에는 2015 교육과정을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 명하여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기술·가정」교과와 경우 2009 개정 각론 교육과정에서 "...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교과간 통합교육..."을 관련 내용에 반영하여 지도하라고 제시하여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p21).

가정교과는 모체 학문인 가정학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이다. 가정학은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학문이자 통합 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유영주, 이정연, 1997). Brown은 가정학의 사명은 가족으로 하여금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그리고 자아반성적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가정학을 모체로 하는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탐구 방식을 요하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hae, Park, Kim, & Han, 2011). 이는 2009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가정교과는 "실천 교과로서의 특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

과에서의 실천의 의미를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그리고 자기반성적 행동의 유기적인 통합 체계로 정의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p18).

가정교과 내용은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소비생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가족생활' 영역은 제 1차 교육과정부터 현 교육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는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은 인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가족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 인성, 생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어 제시된 것이다(Yoo, 2004).

'가족생활' 영역은 인간 발달과 가족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간 발달은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과정과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가족학은 가족의 특징, 가족의 영향, 사랑, 성, 이성교제, 결혼, 가족생활주기 등을 포함하는 학문을 말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2008). 이러한 가족생활 교육은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이혼율 증가 및 가족폭력과 청소년 문제가 급증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여 가족 형태와 가족 생활양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가족생활 교육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기에 학교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은 가정 교과 외에도 타 교과에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가정교과는 가족생활 향상을 통

한 가족 행복에(교육과학기술부, 2011a), 도덕은 도덕규범과 예절에(교육과학기술부, 2011b), 과학은 과학적 탐구능력에(교육과학기술부, 2011c), 사회는 민주시민 양성에(교육과학기술부, 2011d), 체육은 신체 활동에(교육과학기술부, 2011e) 목표를 두어 가족생활교육과 관련하여 접근하고 있기에 그 방식은 다르지만 교과 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다.

교과 간의 내용이 중복되면 수업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른 채 학습하게 되므로 배운 내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 내용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중복된 내용을 배웠다고 해도 각 교과에서의 맥락과 강조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배운 내용을 가르쳤다는 생각에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감소될 것이다(Cho & Chae, 2007).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가정과교사가 다른 교과와 중복된 내용을 미리 알고 중복된 내용의 강조점이 각 교과마다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정과교사는 이 중복된 내용을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가정교과 중심으로 선행조직자를 제작하여 이해 가능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행조직자를 통하여 타 교과와의 융합교육을 수월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교사 개인이 단위 학교나 교실 상황에 맞게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교과서를 재조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통합하여 수업할 수 있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2).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교사가 가정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수준의 융합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융합 수업을 위해서 최근 교과의 연계성이란 담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계성을 위한 기본 작업은 각 교과 교과서 내용의 중복성 분석이다. 중복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타 교과와의 중복된 내용이 각 교과마다 어떻게 강조되어 가르치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가정교과에서 다룰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선행조직자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융합수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교과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근거로 하여 지식, 경험 체계로서의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학습 자료로, 교수활동에 있어 학습자를 동기화 시키고, 학습 주제와 문제를 효율적으로 이해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2004). 학습자들에게 교과서는 학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구성 순서와 내용이 교과과정과 이어질 뿐 아니라 교수과정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Kim, 1998).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 방향은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Yoon, 2004), 교과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수·학습 과정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Bae, 2002). 교과서 분석을 하는 활동은 교사 입장에서 교육 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계획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Oh, 2008; Wang, Ryu, & Baek, 2012).

이제까지 가정 교과와 타 교과와의 중복성에 대한 연구는 가정 교과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의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한 Kim(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가정 교과와 미술 교과의 연계 수업을 위한 지도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정 교과 의생활 단원과 미술 교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식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Lee(1999)는 가정, 체육, 과학 교과를 분석하였으며, Yang(2014)은 과학, 도덕, 체육, 보건 교과서와 가정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Ko(2002)는 가정, 체육,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Park(2012)은 중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을 가정, 체육, 과학, 사회, 도덕 교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Kim(2003)은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관련해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교과와 가정 교과의 교과별 성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고 Cho와 Chae(2007)는 이들 교과의 분석을 통하여 선행조직자를 개발하고 이 수업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정교과 전체 영역과 타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 연구로 Cheong과 Lee와 Yoo(1998)은 중학교 가정 교과와 타 교과와의 관련성과 위계성을 분석하였고, Ahn(2012)은 기

술·가정 교과와 가정부분과 타 교과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Joung(2014)은 중학교 가정 교과와 타 교과와의 중복성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정 교과의 전체 영역을 범위로 비교 분석을 한 Cheong 외(1998)와 Ahn(2012)연구에는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Cheong 외(1998)의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Ahn(2012)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교과 영역부분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 비교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현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가족생활’ 영역이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지,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이 타 교과와 어떤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생활’ 영역 중심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도덕, 사회, 과학, 체육) 교과서와의 중복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별로 중복된 상세내용을 분석하였다. 타 교과로 도덕, 사회, 과학, 체육을 선정한 이유는 Ahn(2012) 연구 결과에서 ‘가족생활’ 영역 내용의 타 교과와의 중복성에 이들 교과들이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가정교과에서의 융합교육을 설계하고 교수·학습과정안과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가족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 고찰

교과서 분석의 방법에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 가정교과서와 다른 교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 동일 교과의 교과서 내용의 학교급별, 학년별 연계성을

분석하는 방법,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Lee, 2010).

‘가족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로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 변화를 살펴본 Goh(2005)는 식민지 시기 가사교과서 내 육아단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식민지 시기 가사 교과서 내 육아단원의 하위영역 구성 체계, 영역의 비중과 보조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당시 가정과 교육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별 연계성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는 Baek(2011), Lee(2002), 그리고 Jung(2004)이 있다. Baek(2011)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기술·가정)교과의 초·중·고등학교 학년 간 연계성을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실과 4종 교과서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4종,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4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내용이 발전되었는지, 반복되었는지, 격차가 있는지, 축소되었는지를 근거로 하여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Lee(2002)는 초등학교 실과와 중,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단일본 실과 교과서와 7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12종 중 5종, 10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6종 중 5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학년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Jung(2004)은 중·고등학교 가정교과 중 ‘가족생활’ 영역의 연계성을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내용 연구법을 사용하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내 ‘가족생활’ 영역을 추출하여 체계화 시켜, 연계성 준거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연계성을 살펴본 연구에는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년 간 연계성 또는 중·고등학교 학년 간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출판사별 비교한 연구에는 Son과 Park과 Chae(2009), Jun(2012), Choi(2002)가 있다. Son 외(2009)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에 대하여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개 학년에 해당하는 총 12

권의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분석한 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교과서의 진로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며, 가정교과서 내 진로교육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Jun(2012)은 2007 개정 교육과정 8학년 가정 교과서 11종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개 양상과, 가족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내용과 의미,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에 다양화에 대한 내용과 이것의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였으며,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에 대한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Choi(2002)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내의 '가족생활' 영역을 분석하였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기술·가정 교과서 10종의 '가족생활' 영역 체제와 지도영역과 내용에 대하여 출판사별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출판사별로 가정교과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진로교육 내용을 비교하고 가정교과서 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을 살펴본 연구, '가족생활' 영역 체제와 지도영역과 내용을 살펴본 연구 등이 있었다.

타 교과와의 비교를 한 연구에는 Ahn(2012), Cheong 외(1998)가 있다. Ahn(2012)은 2007 개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전 단원을 대상으로 기술·가정교과와 가정부분과 타 교과 교과서의 관련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술·가정,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음악 과목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지도 영역의 구성과 비중, 내용, 교과서의 학습 활동, 교수·학습 보조 자료가 어떠한 방법으로 중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일 주제가 과목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heong 외(1998)는 제 6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교과와 다른 교과의 교육내용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정, 도덕, 국어, 사회, 국사, 과학, 수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 한문의 총 12개의 과목에서 가정과 교과내용과 관련된 용어 개념, 원리, 내용을 모두 발췌하고 이를 선별하여 가정과의 다섯 영역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또한 이 내용을 학년별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 개념을 다룰 경우 이 내용을 수용하는 관점에 있어 동일한지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교과

와 타 교과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들은 '가족생활' 뿐 아니라 가정교과가 다루는 모든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로, Kim과 Yoo(2004), Choi와 Yoon(2008), Kim과 Cho(2008) 연구가 있다. Kim과 Yoo(2004), Choi와 Yoon(2008)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하여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에 대하여 계량분석을 하였다. Kim과 Yoo(2004)는 제7차 가정과 교과서 내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과 인물간의 관계가 단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단원에 따라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장인물의 옷의 색과 옷차림, 활동 배경, 활동 묘사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가 삽화 속 양성 평등적, 불평등적 표현과 관련해 단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hoi와 Yoon(2008)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 등장인물의 특징과 구성 및 관계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정'분야와 '기술'분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Kim과 Cho(2008)는 구조기능론, 발달론 및 건강 가정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들은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12종 중 '가정생활의 설계'단원의 본문 내용, 참고 자료, 사진, 그림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가족 구조, 가족 역할, 발달 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의 6가지 분석요소로 추출한 뒤 각 요소마다 구조기능론, 발달론, 건강 가정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가족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 내 삽화와 등장인물의 활동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지 분석한 연구, 구조기능론과 발달론 및 건강가정의 관점에서 '가족'관련 단원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이처럼 '가족생활'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가족생활' 영역을 위주로 분석하면서 타 교과와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가정교과사가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가족생활' 영역 중 다른 교과와 중복된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가정

교과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서 분석 방법 중 타 교과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적합하며, 특히 최근 교육과정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가정 I·II, 「도덕 I·II, 「사회 I·II, 「과학 I·II·III, 「체육」 교과서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도덕, 사회, 과학, 체육으로 택한 이유는 가정 교과 영역부분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 Ahn(2012) 연구 결과에서 ‘가족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타 교과와의 중복성에 이들 교과들이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hn(2012)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가정교과서와 타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 내용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2007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의하면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이해’ 단원이 본 연구주제인 ‘가족생활’ 영역에 해당된다. 가정 교과 영역 중에서 ‘가족의 이해’ 단원내용을 도덕교과가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해’ 단원내용은 도덕, 사회, 과학, 체육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인정 교과서인 가정, 과학, 도덕, 사회, 체육은 여러 종류의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같은 출판사에서 집필된 것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Table 1 참조).

본 연구를 위한 절차는 분석준거 설정, 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와의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중복 내용 분석, 가정 교과의 ‘가족생활’ 영역 교육 방향 제시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실과(기술·가정)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Lee, Choi, & Yoo, 2002)와 한국교육평가원·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의 2009 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2008)를 바탕으로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 기준’과 ‘내용 요소’로 정하여 이를 분석 준거로 하고 내용 체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에서 개발한 내용 요소 분석의 결과인 분석 준거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체육교과서의 내용과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중복성을 파악하였다. 중복성을 파악한 것에 기반하여 가정교과를 수업할 때 타 교과와의 융합교육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였다.

2. 분석준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서 내의 ‘가족생활’ 영역 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준거는 ‘실과(기술·가정)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Lee et al, 2002)’와 ‘가정 과목의 2009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출제·채점 체제 연구(한국교

Table 1. Textbooks for analyses of duplicated contents

textbook	publisher	authors	publication year
가정 I · II	천재교육	이춘식 외	2013
과학 I · II · III	천재교육	이면우 외	2013
도덕 I · II	천재교육	변순용 외	2013
사회 I · II	천재교육	류재명 외	2013
체육	천재교육	이종영 외	2013

육과정평가원,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2008)',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a)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분석 준거를 설정한 절차는 아래 순서와 같다.

첫째, Lee 외(2002)의 연구에서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에 대한 부분 중 '내용 기준', '내용 요소'와 2009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의 출제·채점 체제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2008)에서 '가정경영' 분야, '아동학, 가족학' 분야의 「평가 내용 요소」와 「상세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다.

둘째, 핵심 개념을 추출한 후에 Lee 외(2002)의 연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공동연구(2008)에서 제시한 '가족생활' 영역에 포함된 내용요소와 2009 개

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가족생활' 영역의 세부 내용을 비교·분석한 후에 본 연구에 사용할 '가족생활' 영역 분석 준거를 「내용 기준」, 「내용 요소」, 「상세 내용」의 순으로 개발하였다. 즉 가장 포괄적인 「내용 기준」에서 그 기준에 포함된 「내용 요소」 그리고 그 요소에 포함된 「상세 내용」까지 포함하여 개념에서 그 개념에 포함된 상세 내용까지 마련하여 분석의 일관성과 편의를 꾀하였다 (Table 2 참조).

3. 분석방법

개발된 '가족생활' 영역 분석 준거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뒤 가정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부터

Table 2. Criteria for analyses of 'Family life'

내용 기준	내용 요소	상세 내용
자아 정체감 형성과 청소년의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행동과 평가	인간발달의 이해	- 발달의 개념과 특징 -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
	인간 발달 과정	- 청소년기 성적 발달 - 성 역할과 양성성 - 임신과 출산 -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청소년의 또래 관계 - 청소년의 이성 관계 - 다문화 친구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의 상호 관계 이해를 통해 나와 가족생활에 대한 시각 확장과 이에 따른 다양한 역할 수행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 가족의 개념, 기능, 가치관 - 가족의 형태 - 가족생활 문화 - 건강 가족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 가족 관계 - 의사소통의 개념, 역할 - 효과적인 의사소통 - 갈등의 원인과 해결
	생애설계와 진로	- 생애주기와 생애설계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설계 - 진로 설계
가족생활과 일의 조화를 위한 임무의 긍정적 수행과 가족의 일에 협동적 참여 및 사회적 지원 체계 활용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 일과 가정의 개념 - 일·가정생활 양립 문제 -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노력 - 가족생활과 일을 위한 사회적 지원 - 가정복지 서비스 - 가족법과 정책

검토 받아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 연구진 3인이 분석 결과의 초안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시 내부 연구진이 아닌 가정교과교육학 전공의 2인 교수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즉, 연구 결과의 전체 내용을 1주일 전에 주어 연구 결과가 적합한지 검토하게 한 후 연구자 전원과 한 자리에 만나서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 의견을 듣고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은 함께 논의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 대상은 교과서 본문의 단어, 구, 문장과 그림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석 준거의 「상세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고, 「상세 내용」에 정확히 맞지 않은 경우 「내용 요소」에 포함되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복된 요소로 보았다. 중복된 요소에 대해서는 각 교과 교과서의 목차를 참조하여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의 내용 중 ‘가족생활’과 관련된 단어 혹은 개념이 제시된 경우 해당 단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차별성에 대한 판단은 가정 과목과 타 교과목에서 ‘가족생활’ 영역에 관련한 내용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을 경우, 과목에 따른 교육 목표와 내용의 깊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학교 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와의 ‘가족생활’ 영역 내용의 중복성 분석 결과 개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요소와 타 교과 교과서와의 중복 내용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복지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도덕 교과서에서 중복된 내용 요소가 가장 많았다. 도덕 교과와 중복된 요소는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청소년기 정

서·사회적 발달,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 청소년기 성적 발달, 성 역할과 양성평등,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청소년의 또래 관계, 청소년의 이성 관계, 가족의 개념, 기능, 가치관, 가족의 형태, 가족 관계, 갈등의 원인과 해결, 진로 설계이었다. 사회 교과와 중복된 내용 요소는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과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발달이었다. 과학 교과와 중복된 내용 요소는 청소년기 성적 발달과 임신과 출산이고 체육 교과와 중복된 내용 요소는 청소년기 성적 발달, 성 역할과 양성평등,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이었다. 3개의 교과(도덕, 과학, 체육)에서 중복된 내용 요소는 청소년의 성적 발달이었다. 2개 교과에서 중복된 내용 요소로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과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발달은 도덕과 사회에서 중복되었고, 성 역할과 양성평등은 도덕과 체육에서 중복되었다.

한편 타 교과와 중복되지 않고 가정교과에만 유일하게 제시된 내용요소는 발달의 개념과 특징, 가족생활 문화, 건강 가족, 의사소통의 개념과 역할, 효과적인 의사소통, 생애 주기와 생애설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설계, 일과 가정의 개념, 일 가정생활 양립 문제, 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노력, 가족생활과 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조화, 가정복지 서비스, 가족법과 정책으로 발달 개념이나 가족생활 문화, 의사소통, 생활설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가정복지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 교과목 중 「도덕」 교과서가 가장 높은 중복성을 보였고, 이어서 「사회」, 「과학」, 「체육」 교과서 순으로 중복성을 보였다.

2. 중학교 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와의 ‘가족생활’ 영역 내용의 내용요소별로 중복된 상세내용 분석 결과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별로 타 교과 교과서와의 중복성을 살펴본 결과, 「도덕 I」 교과서는 내용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 ‘인간 발달 과정’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부분이 중복되었고, 「도덕 II」 교과서는 내용 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와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생애

Table 3. Duplicated contents of 'Family life' unit of the text books betwee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for 2009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내용 요소	상세내용	가정 I	가정 II	도덕 I	도덕 II	사회 I	과학 III	체육	비고
인간발달의 이해	- 발달의 개념과 특징	0							
	-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0			0				도덕
	-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0		0	0				도덕
	-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0			0	0			도덕, 사회
	-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	0			0	0			도덕, 사회
인간 발달 과정	- 청소년기 성적 발달	0		0			0	0	도덕, 과학, 체육
	- 성 역할과 양성평등	0		0				0	도덕, 체육
	- 임신과 출산	0					0		과학
	-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0		0				0	체육
	- 청소년의 또래 관계	0		0					도덕
	- 청소년의 이성 관계	0		0					도덕
	- 다문화 친구와의 관계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 가족의 개념, 기능, 가치관		0	0					도덕
	- 가족의 형태		0	0					도덕
	- 가족생활 문화		0						
	- 건강 가족		0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 가족 관계		0	0					도덕
	- 의사소통의 개념, 역할		0						
	- 효과적인 의사소통		0						
생애설계와 진로	- 갈등의 원인과 해결		0		0				도덕
	- 생애주기와 생애설계		0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설계		0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 진로 설계		0		0				도덕
	- 일과 가정의 개념		0						
	- 일·가정생활 양립 문제		0						
	-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노력		0						
	- 가족생활과 일을 위한 사회적 지원		0						
	- 일·가정생활·여가생활의 조화		0						
	- 가정복지 서비스		0						
- 가족법과 정책		0							

0 = 중복 내용요소가 있음, 빈칸 = 중복 내용요소가 없음

설계와 진로'부분이 중복되었고, 중복 양을 비교해 보면 「도덕 II」교과서에 비해 「도덕 I」교과서의 중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 I」교과서는 내용 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 부분이 중복 되었으며 「사회 II」교과서는 중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 I·II」교과서는 중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과학 III」교과서와 「체육」 교과서에서 내용 요소 '인간 발달 과정' 부분이 중복 제시되었다.

가. 가정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의 비교

(1) 내용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 관련 부분

'인간 발달의 이해' 관련 부분에서 가정 교과와 도덕 교과의 가족생활 관련 중복 상세 내용은 아래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 부분이다.

Table 4.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Ethics textbooks regarding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내용요소	상세내용	「가정 I」	「도덕 I」	「도덕 II」	중복성	차별성
인간발달의 이해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의 성장 급등(본문¹⁾, p15) • 청소년기의 2차 성장(본문, p16) • 청소년기 성장의 개인차(본문, p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특징(본문, p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정신적 발달 	「가정 I」 교과서는 변화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 제시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지적 능력의 발달(본문, p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추론의 가능(본문, p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사고 	「가정 I」 교과서는 예시를 통해 이해를 용이하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도덕성의 발달(본문, p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사고의 개념과 필요성(54) •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불일치하는 원인(본문, p55) • 도덕적 실천 동기의 개념(본문, p58) • 도덕적 실천 동기를 주는 요소 : 사랑, 공감, 선의지(본문, p58) • 도덕적 실천 능력을 기르는 방법(본문, p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발달
인간발달의 이해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정서의 발달(본문, p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본문, p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 	「가정 I」 교과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행동을 제시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정체감의 의미와 중요성(본문, p26) • 올바른 자아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그림, 26) •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본문, p27) •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그림, 27) •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본문, p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확립(본문, p118) •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이해(본문, p42) • 자아 정체성의 개념(본문, p43) •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형성이 성장에 주는 영향(본문, p43) • 자아 정체성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본문, p43) • 도덕적 자아의 개념(본문, p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정체감 	「가정 I」 교과서는 실제적 행동 방법 제시, 「도덕 II」 교과서는 철학적 개념 제시

1) '본문'은 해당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말하며, 관련 내용이 있는 쪽수를 병기함.

‘인간 발달의 이해’ 부분에서 「가정 I」교과서에는 중단원이 ‘청소년의 발달’로 제시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사회적 발달, 자아 정체감 형성 등 각각 소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덕 I」과 「도덕 II」 교과서에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단원의 도입부에 ‘청소년기의 특징’을 신체와 정서적으로 변화가 있으며, 논리적 추론을 하고, 자아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기임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에서, 「가정 I」교과서에는 청소년의 키와 몸무게의 증가, 신체 변화, 2차 성징의 특징에 관하여 실증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청소년기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였고, 신체 변화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지만, 「도덕 II」 교과서는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있다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에서, ‘논리적 추론’과 ‘도덕성’의 내용이 중복되는 데 ‘논리적 추론’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정 I」교과서에는 “청소년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가설을 세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춘식 외, 2013, p19)고 제시한 데 비해, 「도덕 II」 교과서에는 청소년기는 아이 때와는 달리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을 뿐 논리적 추론과 문제 해결 과정을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정 I」교과서에는 모든 단원에서 삶의 문제는 행동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이 행동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덕성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도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성이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에 발달하는 도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성 발달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고, 심리적 충동이나 압력, 경쟁 중심의 청소년 문화 등으로 인해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도덕 I」 교과서에는 ‘나의 삶과 도덕’이라는 대단원 아래에 ‘도덕성’을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도덕적 사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적

행동을 함께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의 실천적 행동이나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에서, 「가정 I」교과서에는 예민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 정서 발달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처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 II」교과서에는 “청소년기의 정서는 예민하고 불안하여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변순용 외, 2013, p118)라고 하여 청소년기 정서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에서 「가정 I」교과서에는 자아 정체감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아 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하였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청소년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덕 II」교과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존재,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어 도덕적 자아를 형성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두 과목 모두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덕 II」교과서는 ‘자아’에 대한 이해, 자아 정체성의 과정에 대하여 철학적 개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가정 I」교과서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천할 행동 양식과 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 I」교과서는 「도덕 II」 교과서에 비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발달 특성에 대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 긍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직접 청소년의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I」교과서와 「도덕 II」 교과서의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 I」교과서는 연령에 따른 청소년 신체 성장의 평균을 수치로 제시하여 설명하였고, 2차 성장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인해 학습자인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정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영역 중 논리적 사고와 도덕성 발달에 대한 부분에서 「가정 I」교과서는 '논리적 사고'와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사고'와 '도덕성' 발달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특히 '도덕성의 발달' 부분에 있어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발달하는 도덕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도덕성 발달을 위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질적 예를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의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비추어 보면, 가정교과는 인간이 접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도덕성을 통합하여 실천을 유도한 반면에 도

덕교과는 도덕성만을 강조하여 과학적 지식과 도덕성을 통합하여 실천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해서 「가정 I」교과서가 발달 요소 부분에 있어서도 「도덕 II」교과서에 비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내용요소 '인간 발달 과정' 관련 부분

아래 <Table 5>에서 보듯이, '인간 발달 과정' 관련 부분에서 가정 교과와 도덕 교과가 중복으로 제시된 상세 내용은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청소년의 또래 관계' 부분이다.

청소년기 성에 대해서 「가정 I」교과서에는 성에 대한 개념과 청소년기 성 호르몬의 분비 증가로 인해 성적 감정과 욕구가 생기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청소년의 성 문제,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의 영향과 건전한 이

Table 5.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Ethics textbooks regarding 'Human Development Process'

내용요소	상세 내용	「가정 I」	「도덕 I」	중복성	차별성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개념과 중요성(본문, p31) •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본문, p36) • 성적 욕구 조절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본문, p38) • 10대 임신의 문제점(본문, p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개념과 가치(본문, p94) • 청소년기 성적 욕구의 절제 필요성(본문, p94) • 성적 욕망 조절의 중요성(본문, p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욕구 • 이성 친구와의 관계 • 이성 교제의 영향 	「가정 I」 교과서는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함
인간 발달 과정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우정의 중요성(본문, p42) • 건강한 친구 관계의 영향(본문, p43) • 이성 친구와의 관계의 영향(본문, p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친구의 개념(본문, p86) • 청소년기 친구의 긍정적 영향(본문, p86) • 청소년기 우정의 의미(본문, p87) • 청소년기 올바른 우정을 쌓기 위한 노력(본문, p87) • 친구 간 갈등의 원인(본문, p90) • 친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본문, p90) • 이성 교제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본문, p95) • 이성 교제 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본문, p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친구 관계 	「가정 I」 교과서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고, 「도덕 I」 교과서는 도덕적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제시

성 교제의 태도에 대하여 각각의 단원으로 배치되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덕 I』교과서에는 청소년기 성의 개념과 가치, 사랑,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에 대하여 제시된 부분에 대해선 두 과목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 I』교과서는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생식 기관의 발달, 임신의 과정과 같은 생물학적 내용이 제시됨으로 인해 가치와 태도 뿐 아니라 실제적 생식 과정과 함께 제시하여 성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도덕 I』교과서에는 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부분만 제시하였다.

청소년기의 우정에 관하여 제시된 부분은 『가정 I』교과서와 『도덕 I』교과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두 교과 모두 우정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우정을 쌓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두 교과 모두 '친구'는 마음의 지지자로서,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 우정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제시된 내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정 I』교과서에는 친구 관계의 중요성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구체적 상황을 주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기술하였다. 즉, 우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학업에 도움 주고받기, 자신이 겪는 변화와 갈등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 얻기, 다양한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배우기, 친구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아 정체감 발달시키기 등과 같이 우정의 중요성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관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도덕 I』교과서에는 우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지만 제시된 우정의 중요성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다와 같이 개인 성장, 개인의 발달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의미로 설명하

고 있다. 바람직한 친구 관계유지 방법에 있어서도 『가정 I』교과서에는 친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기, 고운 말 사용하기, 친구의 장점은 칭찬하고, 나쁜 점은 일깨워 주기 등 노력 방법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도덕 I』교과서에는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기, 협력하며 성장을 자극하는 선의의 경쟁하기, 믿음 가지기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정 I』교과서와 『도덕 I』교과서의 공통된 내용은 이성 친구를 사귀므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성교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동적 성 욕구를 절제하는 자세, 그렇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 교제를 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 내용 요소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정 I』교과서에는 상대방과 나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통해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 중심적인 부분을 강조한 반면에, 『도덕 I』교과서에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간 발달 과정' 중 청소년기의 성, 청소년기의 우정에 대한 내용은 『가정 I』교과서가 『도덕 I』교과서에 비하여 제시하는 범위가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과학적 지식과 도덕성을 통합하여 생활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내용 요소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관련 부분

아래 <Table 6>에서 보듯이, 내용 요소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에서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교과서의 중복된 상세 내용은 '가족의 개념, 기능, 가치관'이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가정 II』교과서는 가족의 개념과 중요성, 가족의 형태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고, 『도덕 I』교과서는 가정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과목이 가족 혹은 가정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제시한 내용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며,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라

Table 6.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Ethics textbooks regarding 'Understanding of Family and Change of Family'

내용요소	상세 내용	「가정 II」	「도덕 I」	중복성	차별성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가족의 개념, 기능,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본문, p15) • 가족의 중요성(그림, 15) • 다양한 가족 형태 (그림, 16-17) • 가족 규모의 축소 (본문, p16) • 가족 형태의 다양화 (본문, p16) • 가족의 기능(본문, p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개념(본문, p72) • 가정의 기능 (본문, p72) • 가족 형태의 변화(본문, p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기능 • 가족의 형태 	「가정 II」 교과서는 가족의 기능과 형태, 다양성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통한 제시. 「도덕 I」 교과서는 양상에 대한 간략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가치관의 변화 (본문, p22) • 가부장의 개념(본문, p22) • 양성평등의 개념 (본문, p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의 개념(본문, p140) •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차별 (본문, p141) •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노력 (본문, p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가정 II」 교과서는 '가족'내의 양성평등을, 「도덕 I」 교과서는 전반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제시.

는 점이다. 「가정 II」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형태에 관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도덕 I」 교과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현대 가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가족 혹은 가정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두 과목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용어 선택에 있어 두 과목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에게 초점을 둔 구조와 관계에 중심을 두었다면, 가정은 가족, 가족생활, 가족을 둘러싼 환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가정 II」교과서에서는 '가족'이란 용어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역할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고, 「도덕 I」교과서에서는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교과서에 중복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과거엔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였지만, 현대사회가 되면서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며, 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가정 II」교과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과 같은 과거에는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졌다면, 현대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상호 협조와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 I」교과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양성평등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 II」교과서는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가족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고, 「도덕 I」교과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가정 II」교과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도덕 I」교과서는 '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만 실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내용요소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관련 부분

아래 <Table 7>에서 보듯이,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내용 요소에서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 「도덕 II」교과서에서 중복된 상세 내용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갈

Table 7.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Ethics textbooks regarding 'Family Relationship and Family Problems'

내용요소	상세 내용	「가정 II」	「도덕 I」	「도덕 II」	중복성	차별성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의 중요성 (본문, p31) • 가족 관계의 중요성 (그림, 31) • 바람직한 가족 관계 : 부부관계(본문, p32) • 바람직한 가족 관계 : 부모 자녀 관계 (본문, p32) • 바람직한 가족 관계 : 형제자매 관계(본문, p33) • 바람직한 가족 관계 : 조부모 손 자녀 관계(본문, p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식 간의 바람직한 관계 (본문, p76) • 부부간의 바람직한 관계(본문, p76) • 형제자매간의 바람직한 관계 (본문, p76) • 늙는 것의 자연스러운 과정(본문, p80) • 노인의 특징 (본문, p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 : 부모와 자식, 부부간, 형제 자매 • 노인 	「가정 II」 교과서는 노인에 대한 영역을 조부모와 손 자녀 관계로 보고, 「도덕 I」 교과서는 일반적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제시
	갈등의 원인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갈등의 개념 (본문, p40) • 가족 갈등의 원인 (그림, 40) •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시 유의할 점(본문, p41) • 가족 갈등의 원만한 해결 방법(그림, 41) •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본문, p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개념 (본문, p108) • 갈등을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본문, p108) • 갈등 해결의 중요성(본문, p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개념 • 갈등의 해결 	「가정 II」 교과서는 '가족'의 갈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도덕 II」 교과서는 '일반적' 갈등에 대하여 제시

등의 개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교과서에는 가족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 II」교과서는 이에 조부모 손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고, 「도덕 I」교과서는 조부모 손 자녀 관계 부분 대신 '늙는다는 것과 노인 공경'의 소단원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 두 과목 모두 노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지만, 「가정 II」교과서는 가족 관계 내 조부모와 손 자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덕 I」교과서는 내 가족이 아니라라도,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하여 두 과목이 중복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정 II」교과서는 서로에게 주는 영향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취해야 할 자세에 관하여 쉽

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면, 「도덕 I」교과서는 도덕적 자세에 대하여 도덕적 개념을 가진 용어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갈등의 개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I」교과서 모두 갈등의 개념과 갈등의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가정 II」교과서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다루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덕 II」교과서에서 다루는 갈등은 폭력의 전제로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 방법과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부분에서 「가정 II」, 「도덕 I」교과서 모두 가족 관계에 대해선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시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가정 II」교과서는 조부모와 손 자녀와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

었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제시가 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실생활에 적용시킴에 있어 용이할 것이라 사료된다. ‘건강한 가족 관계의 형성’ 부분에서 「가정 II」교과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도덕 II」교과서는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상 제시된 내용면에 있어서는 두 과목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갈등에 대한 개념과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된다.

(5) 내용요소 ‘생애 설계와 진로’ 관련 부분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I」교과서가 ‘생애 설계와 진로’ 내용 요소에서 중복된 내용은 <Table 8>에서 보듯이 ‘진로의 설계’이다.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I」교과서는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나’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신체조건, 가정환경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정 II」교과서에는 진로 선택의 단계를 총 5단계로 제시하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진로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덕 II」교과서는 진로·

진학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과정에 대해 「가정 II」교과서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진로 선택의 단계 중 나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두 과목 모두 자세하게 설명되었는데, 「가정 II」교과서는 나에 대한 이해를 진로 설계의 2번째 단계로 나타내어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 볼 요소와 그 요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요소에 해당하는 여러 유형에 대하여 제시해 자신이 속하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도덕 II」교과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살펴볼 요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정도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 II」교과서와 「도덕 II」교과서 모두 진로와 진학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중복되었지만, 「도덕 II」교과서에 비하여 「가정 II」교과서가 진로 설계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애 설계 적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덕 II」교과서에 제시된 ‘나에 대한 이해’ 관련 내용은 결과적으로 「가정 II」교과서의 진로 설계 단계 중 한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차기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가정과의 핵심이 되는 가정과 직업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생애 설계적 차원에서 진로관련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8.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Ethics textbooks regarding ‘Life planning and Career’

내용 요소	상세 내용	「가정 II」	「도덕 II」	중복성	차별성
생애 설계와 진로	진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의 개념과 중요성 (본문, p136) 행복한 삶과 진로 (그림, 136) 나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본문, p138-139)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그림, 138-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진학 선택의 중요성 (본문, p64) 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고려할 점 :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 직업 세계의 변화(본문, p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의 중요성 나에 대한 이해 	<p>「가정 II」 교과서는 진로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치에 대하여 설명함을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덕 II」교과서는 고려 요소를 제시함을 통해 중요성 짧게 강조</p> <p>진로 선택을 위해 나에 대해 고려할 요소에 대해 「가정 II」교과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도덕 II」교과서는 대략적으로 설명</p>

나. 가정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의 비교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가정 I」교과서 '가족생활' 영역과 「사회 I」교과서의 중복된 내용은 내용 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 중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이다.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중 '청소년의 정서 발달' 내용에서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기의 불안한 심리 상태의 특징과 이러한 감정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정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노력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청소년기 정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사회 I」 교과서는 '사회화와 청소년기' 단원에서 청소년기 사회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중 "청소년기는 감정적으로 불안한 시기라는 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린다." (류재명 외, 2013, p153)라고 하여 청소년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성 발달'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의 특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되었고, 「사회 I」 교과서는 청소년기 사회화의 특징과 그로인해 성장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두 교과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기'임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 시기

사회성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함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의 부분에서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징 중 자아 정체감의 개념과 중요성, 자아 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한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특징 비교,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제시하였고, 「사회 I」 교과서는 청소년기 사회화의 주된 내용 중 하나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함을 설명하였다. 두 교과 모두 자아 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지만, 「가정 I」교과에서 자아정체감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음을 보였다.

「가정 I」교과서와 「사회 I」교과서의 중복 내용 중 '건강한 자아 정체감의 형성'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기는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격동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류재명 외, 2013, p26) 라고 설명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건전한 여가 활동', '적당한 운동', '가족,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형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청소년기 불안정한 정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 I」교과서는 청소년기 불안한 감정 상태로 인해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상태에 대하여 제시할 뿐, 그로 인한 구체적 특징이나 이를 대처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두 교과가 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선 비슷한 양상을

Table 9.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regarding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내용요소	상세내용	「가정 I」	「사회 I」	중복성	차별성
인간 발달의 이해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 청소년기 불안정한 심리 상태 (본문, p22)	• 청소년기의 감정적 특징 (본문, p152)	• 질풍노도의 시기	
		•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본문, p24)	• 청소년기 사회화(본문, p153) • 청소년 시기의 좋은 친구 관계는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신문으로 보는 세상, p152)	• 사회화의 개념 • 청소년기 친구의 중요성	가정 교과는 사회성 발달을 위한 노력 자세 제시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	• 자아 정체감의 개념과 중요성 (본문, p26)	• 자아 정체성의 개념(본문, p153)	• 자아 정체성의 개념	가정 교과는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방법 제시

보이지만, 청소년의 발달에 대하여 「가정 I」교과서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사회적 발달, 자아 정체감 형성, 성적 발달, 또래 관계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많은 요소에의 발달에 대하여 단원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발달 특성 뿐 아니라 대처하는 자세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인 청소년이 생활에서 학습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사회 I」교과서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내용은 「가정 I」교과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가정 교과서와 과학 교과서의 비교

아래 <표 10>에서 보듯이, 「가정 I」교과서 ‘가족생활’ 영역과 「과학 III」 교과서와 중복된 내용은 내용 요소 ‘인간 발달 과정’에 포함된 ‘청소년기 성적 발달’로, ‘남녀의 생식기관’과 ‘임신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남녀의 생식기관’ 내용에서 「가정 I」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의 특징 중 2차 성징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식 기관에 대한 내용과 청소년기 성에 대한 태도, 의미, 중요성에 대하여도 강조하여 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찰하

는 내용을 담았고 「과학 III」은 생물 분야 ‘생식과 발생’ 단원의 한 분야로 수정과 발생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임신의 과정’에서 「가정」은 “임신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고귀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 임신을 해야 부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이면우 외, 2013, p35)라고 하여 임신은 청소년에게 앞으로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모가 되기 위한 고귀한 과정이라는 임신의 의미와 임신의 생물학적 과정 즉 사정, 배란, 수정, 착상, 발육의 방향을 한 문단으로 설명하여 제시하고 임신을 맞는 태도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반면에 「과학 III」은 세포분열과 함께 임신의 생물학적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지만 임신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임신이 청소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보아 「가정」은 「과학」에 비해서 ‘남녀의 생식기관’이나 ‘임신 과정’을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에 겪을 일에 초점을 두어 과학적인

Table 10.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Science textbooks regarding ‘Human Development Process’

내용 요소	상세 내용	「가정 I」	「과학 III」	중복성	차별성
인간 발달 과정	청소년기 성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생식 기관의 발달 (본문, p32) 여성의 생식 기관의 발달 (본문, p33) 배란과 월경(그림, p33) 남성의 생식 기관의 발달 (그림, p32) 여성의 생식 기관의 발달 (그림, p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생식 기관 (그림, p204) 여성의 생식 기관 (그림, p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의 생식 기관의 구조 	생식 기관에 대해 가정 교과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내용과 청소년기 성에 대한 태도와, 의미, 중요성에 대하여도 강조하여 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설명 과학 교과서는 생식 기관의 구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의미(본문, p35) 정자와 난자의 비교(그림, p32) 임신의 과정(본문, 그림, p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자와 정자의 구조 (그림, p203) 수정의 과정(그림, p208) 수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까지의 과정 (그림, p21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과정 	가정 교과서는 임신의 생물학적 과정과 이를 맞이하는 태도를 제시 과학 교과서는 생물학적 과정만 제시

지식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이 현재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가치와 관련하여 성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가정」에서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성 내용을 수업할 때 「과학」에 제시된 '남녀의 생식기관'과 '임신 과정'을 제시하거나 찾아보게 하여 과학적 지식을 좀 더 세밀하게 탐구하게 하고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고 성찰하게 하여 과학적 지식과 가치 지식을 토대로 실천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가정」과 「과학」의 '남녀의 생식 기관'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교과서 본문, 보충자료, 그림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교과는 청소년기가 되어 성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생식 기관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였고, 과학 교과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을 설명하였다. 두 교과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남녀의 생식 기관을 설명하고 보충 자료로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각각의 교과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중

복성이 매우 높았지만, 가정 교과는 생물학적 생식 기관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기 성에 대한 태도와, 의미, 중요성에 대하여도 강조하여 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였다.

임신의 과정에 관련하여 가정 교과와 과학 교과는 정자와 난자의 구조에 관해 설명하고, 수정과 착상을 거쳐 임신하게 되는 과정을 그림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가정 교과는 임신의 과정을 사정, 배란, 수정, 착상, 발육의 방향으로 한 번에 설명하고 있으나, 과학 교과는 각각의 단계를 생물학적으로 세포 분열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과학 교과는 임신 후 발육 과정과 방법을 생물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고, 과학 교과는 임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중하고 고귀한 태도를 가지도록 제시되어 있다.

라. 가정 교과서와 체육 교과서의 비교

「가정 I」교과서 '가족생활' 영역에서 「체육」교과서와 중

Table 11. Duplicated and differentia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and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regarding 'Human Development Process'

내용 요소	상세 내용	「가정 I」	「체육」	중복성	차별성
인간 발달 과정	청소년기 성적 발달	• 청소년기의 2차 성징 (본문, p16)	• 청소년기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그림, p58)	• 2차 성징	「가정 I」교과서는 실질적 자료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2차 성징의 신체적 특성을 정신적인 태도와 행동에까지 연계하면서 「체육」 교과서는 2차 성징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남녀 성별에 따라 제시하여 이 내용을 인간의 신체에만 국한
	성 역할과 양성성	• 청소년기 성 역할의 발달(본문, p25)	• 성역할 개념(본문, p59)	• 시대에 따른 성 역할 고정 관념 • 양성성의 중요성	「가정 I」 교과서는 청소년기 정서 사회적 발달 중의 하나로 성 역할의 발달이 제시되었고, 「체육」교과서는 성에 대한 이해 중 소단원으로 성역할이 제시되었다.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본문, p40) • 성폭력 예방과 대처 (그림, p40)	•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그림 ²⁾ , p59)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행동 (본문, p60)	•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가정 I」 교과서에는 성에 대한 내용이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소단원으로 구성된 「체육」교과서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 '그림'은 해당교과서의 그림을 말하며, 관련 그림이 있는 쪽수를 병기함.

복된 내용은 <Table 11>에서 나타났듯이, 내용 요소 ‘인간 발달 과정’ 중 ‘청소년기 성적 발달’과 ‘성 역할과 양성성’, ‘성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 부분이였다.

<Table 11>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2차 성징에 대해서 「가정 I」교과서는 성별에 따른 2차 성징의 특징과 청소년기 신체적 성장의 급등에 대하여 실질적 자료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대처하는 청소년의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2차 성징의 신체적 특성을 정신적인 태도와 행동에까지 연계하였다. 반면에 「체육」교과서는 2차 성징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남녀 성별에 따라 제시하여 이 내용을 인간의 신체에만 국한하여 다루었다.

시대에 따른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두 교과 모두 과거의 성역할 고정 관념이 현대에 오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와 양성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가정 I」교과서에는 청소년기 정서·사회적 발달 중의 하나로 성 역할의 발달이 제시되어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양성 성을 가진 사람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여 양성성의 발달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면, 「체육」교과서에는 성별에 따라 역할의 차이를 두지 않고 양성 평등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가정 I」교과서는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함으로써 인해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체육」교과서 역시 성폭력의 개념과 예방,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단원 뒤에 이어서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고 「체육」교과서는 비교적 성에 대한 설명이 「가정 I」교과서에 비하여 짧게 제시되었다는 점이 차이로 나타났다. 교과서 중복 내용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보아 「체육」교과에 제시된 내용은 「가정」교과에 대부분 중복적으로 속해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I·II」 교과서의 ‘가족 생활’ 영역 부분과 타 교과 교과서와의 중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덕」교과서가 가장 중복된 부분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체육」, 「사회」교과서 순으로 있었다.

「도덕 I·II」 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가정 I·II」 교과서와 가장 높은 중복성을 보였는데, 가정 교과의 내용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 ‘인간 발달 과정’,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 ‘생애 설계와 진로’와 중복된 부분이 제시되었다. ‘인간 발달의 이해’에서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와 함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자세에 대하여 제시된 반면, 「도덕 II」교과서는 실질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발달 현상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기 성적 발달에 대하여 생물학적 접근과, 발달 현상을 대처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자세, 우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도덕 I」교과서에는 청소년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대한 내용과 청소년기 우정의 영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에선 ‘가정’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었지만, 가족의 기능과 형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 「가정 II」교과서에 비하여 「도덕 I」교과서는 본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만 제시되었다. ‘가족 관계와 가족 문제’에선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갈등에 대한 내용이 두 과목에서 중복되었지만, 「가정 II」교과서는 ‘가족 내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도덕 II」교과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을 제시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생애 설계와 진로’에서 ‘진로’ 부분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었지만, 「가정 II」교과서는 진로 계획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도덕 II」교과서는 「가정 II」교과서에 제시된 진로 계획 단계 중 한 단계인 진로 선택을 위해 나에게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내용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정교과서와 도덕교과서가 특정한 단원이 밀접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중복된 내용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복된 내용은 대체로 도덕교과서 내용이 가정교과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도덕교과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을 도모함으로 인해 '도덕적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가정교과서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처하는 청소년의 구체적 행동 양식을 강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교과에서 '가족생활' 영역 수업을 할 때 도덕교과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와 사고를 강조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 I」교과서는 「가정 I」교과서의 내용요소 '인간 발달의 이해' 중 '청소년의 정서·사회적 발달' 부분과 중복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사회 I」교과서는 '사회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그 중 한 부분으로 '청소년기의 특징'과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가정 I」교과서는 '청소년의 발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발달 요소 중 하나로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이 제시되었다. 두 교과서 모두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과 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감에 대하여 제시되었지만 「사회 I」교과서는 정서, 사회성,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한 개념과 특징만 제시하였고, '사회화'에 대하여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일반적 의미의 '사회화'에 대하여 설명한 반면, 「가정 I」교과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사회성 발달을 위한 노력,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노력과 같은 실질적인 청소년의 행동 양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정과수업에서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I」교과서에 제시된 청소년기의 정서와 자아 정체감에 대한 내용은 「가정 I」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 I」교과에서 '청소년의 발달' 내용 중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부분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사회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할 경우 수업 도입 부분에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교과를 통해서 배운 일반적 의미의 '사회화'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과학 III」교과서는 「가정 I」교과서의 내용요소 '인간

발달 과정' 중에서 '청소년의 성적 발달' 부분과 중복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남녀의 생식 기관과 임신의 과정에 대한 설명인 반면, 「가정」교과서는 남녀의 생식 기관의 발달과 임신의 과정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과학」교과에서 중복 내용은 '생식과 발생'의 대단원 중 '수정과 발생'의 소단원에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 라고 제시되었다. 따라서 「과학」교과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생식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가정」교과서는 청소년기 생식 기관의 발달과 임신의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 제시를 통해 생물학적인 관점이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성적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 수업을 할 때, 생식 기관과 임신의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과학」교과의 관련 단원의 성취기준을 참고하고 과학교과서본문이나 그림자료를 보조 자료로 제시하여 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교과서는 「가정 I」교과서의 내용요소 '인간 발달 과정'의 '청소년의 성적 발달' 부분과 중복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체육」교과서의 '건강 활동' 대단원 부분 '건강과 체력' 중단원 내에 '성의 이해와 성폭력 예방'의 내용이 「가정」교과서 '청소년기 성적 발달 특성',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부분과 중복되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목에서 제시된 단어와 내용 부분이 비슷하지만, 제시된 교과서의 양과 지식의 깊이 부분은 「가정」교과가 더욱 심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I」교과서에는 「체육」교과서에 비하여 사진과 그림 등의 자료가 더 많이 제시되어 있었고, 교과서 구성에 있어 「체육」교과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내용이 '성'에 대한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른 발달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만 제시된 반면, 「가정」교과서에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전반적인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중복성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과서의 내용에 타 교과

내용이 포함되는지, 보충 설명이 되는지, 연계되는지 내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도덕」 교과는 「가정」교과의 전반적 부분에 있어 '태도'와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함에 도움이 된다. 「사회」 교과는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 「과학」 교과는 '생식'에 대한 내용을 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사실적인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 기관과 탄생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체육」 과목은 건강한 체력을 지니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해야 하는 지식을 통해 「가정」 교과와 「인간 발달의 이해」 영역 '청소년의 발달' 단원에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 교과는 '가족생활' 영역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한 이론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이론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중심의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융합 교육을 위해서 기초 지식을 기를 수 있는 이론 부분에서 과학 과목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회, 체육 과목을, 태도와 가치를 기르기 위해 도덕 과목의 중복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교육과정이지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가정교과사가 '가족생활' 영역을 다룰 때 해당 내용이 다른 교과와 어떤 중복된 내용과 차별된 내용이 있는 지 파악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교과와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 교과와 타 교과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중복 부분에 대하여만 분석이 되었을 뿐, 학습 학년을 고려한 연계성에 대하여는 제시되지 않았다. 교과의 학습 순서를 파악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정교과와 타 교과와의 중복 또는 차별되는 내용을 가정교과사가 숙지하여 가정과수업

에서 강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언급하였고, 다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가족생활' 관련 내용을 학생들의 선행지식 또는 후행지식으로 참고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이 아닌 학년군으로 되어져 있고 학교별·교사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어 교과의 학습 순서가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업에 적용할 때는 교과서 내용 순서가 아니라 학교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가족생활' 영역과 관련된 학습을 '중학교'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학년까지의 연구를 통해 학년에 따른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가정 교과와 '가족생활' 영역과 타 교과의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현장에 적합한 수업안 개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생활' 영역과 관련된 교과별 중복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망을 만들어 융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Ahn, S. E. (2012). *Comparison analyses on Home Economics content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ae, J. S. (2002). Requirement for a good textbook. *교과서연구*, 39, 22-26.
- Baek, J. W. (2011). Analysis of articulations among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7.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1).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Kyomunsa.
- Cheong, J. H., Lee, S. J., & Yoo, T. M. (1998). A Analysis of the

- Relevance betwee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in the Middle School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0(1), 77-93.
- Cho, S. K. & Chae, J. H. (2007). A development of concept map as an advance organizer based on analysis of the overlapped and connec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those of other subject matters in the middle school: Focused on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15-25.
- Choi, J. H. (2002). Analysis of family life part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15-25.
- Choi, Y. S., & Yoon, I. K. (2008).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hotos and Illustrations in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 Based on A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 85-100
- Goh, S. O. (2005). *A study on the unit of child rearing in household textbooks during the colonial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Joung, S. H. (2014).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 Program for the STEAM oriented Home Economics(H-STEAM) : - based on an analysis of the overlapped contents of other subject textbooks in the middle school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Jun, M. K. (2012). A Study of 'Families' as presented during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 Focusing on the 'The Changing Family'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1-163
- Jung, S. K. (2004). *Sequentiality Analysis of 'Family Life' section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Middle and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11). *A Study on Teaching Plans for Effective Connection of Home Economics and Art Education in Middle School : Focused on the Clothing S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 Cho, B. E. (2008). A Content Analysis of the Family-Related Unit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f Structure Functionalism and Family Development and Healthy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 117-136.
- Kim, M. J., & Yoo, T. M. (2004).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27-41.
- Kim, J. H. (2003). *Comparison between the contents of 'Management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rea in Home Economics textbook and those of other subject textbooks of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S. (1998). *A Study on the word problems in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from a problem solving point of view*. Unpublished doctorate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 J. K. (2002). *The contents analysis of sexuality education in the textbooks of junior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S., Choi, Y. H., & Yoo, T. M. (2002).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objectives and contents of school 'Practical Arts' and 'Technology & Home Economics' II*.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Seoul, Korea.
- Lee, J. Y. (2002). *The Study on continuity and sequences from 'practical arts'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to 'home economics' contents in secondary school : Focused on the "family and work" s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O. (2004).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text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ee, Y. S. (1999). *Content analysis food & nutrition section in middle school textbooks : home economics, physical education, sc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Y. S. (2010). An Analysis on the Units of 'Adolescence Self-Management' and 'Adolescence Consumption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How the Emphasis of the 2007 Curriculum Revision is Reflecte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1-17.
- Oh, Y. J. (2008). *Content analysis on the unit of 'excretion' in biology(I) textbooks of high school based upon the instructional design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R. (2012).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Middle School Subjects Related to Sex Education and a Study of Parents' Awareness of the Contents of Sex Education in Home Economics: With a Focus on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Son, H. H., Park, M. J., & Chae, J. H. (2009). A Content Analysis on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Textbook of the Secondary School developed by the 7th Educational Proc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45-158.
- Wang, S. S., Ryu, K. H., & Baek, J. W. (2012). Analysis on Articulations of the doma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in the subject of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12), 1-20.
- Yang, S. J. (2014). *The analysis of common contents of "Food and Nutrition Unit" of middle school textbooks for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 Y. J. (2004). *Family science*. Seoul: 신정출판사.
- Yoon, I. K. (2004). A Study on Comparison of 6th Curriculum and 7th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1-8.
- 경기도교육청 (2012). **2012년 경기도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0].
- 교육과학기술부(2011b).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6].
- 교육과학기술부(2011c).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9].
- 교육과학기술부(2011d).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2011e).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1].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15).
<http://ncic.go.kr/mobile.revise.board.view.do>.
- 김진수(2012). STEAM 교육론. 양서원.
- 류재명 외(2013), 사회교과서 I·II. 천재교육.
- 백윤수, 김영민, 노석구, 박현주, 이주연, 정진수, 최유현, 최종현, 한혜숙(2012).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12.
- 변순용 외(2013), 도덕교과서 I·II. 천재교육.
- 유영주, 이정연(1997).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 이면우 외(2013), 과학교과서 I·II·III. 천재교육.
- 이종영 외(2013), 체육교과서. 천재교육.
- 이춘식 외(2013), 기술·가정교과서 I·II. 천재교육.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RE: 2008-6-32.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에 따라 집필된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 교과와 타 교과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가정 I·II」교과서와「도덕 I·II」, 「사회 I·II」, 「과학 I·II·III」, 「체육」교과서를 내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I·II」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과 타 교과 교과서와의 중복 내용은 「도덕」교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체육」, 「사회」교과 순이었다. 「도덕」교과서는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과 전 단원에 걸쳐 중복된 내용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가정」 교과서와 중복된 내용으로 「과학」과 「체육」은 내용요소 '인간 발달 과정' 중 '청소년의 성적 발달' 내용이었고, 「사회」는 '인간발달의 이해' 중 '청소년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과 「과학」, 「체육」, 「사회」교과가 중복된 내용이 있었으나 가정교과가 타 교과에 비해서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 영위라는 목표 하에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도덕, 사회, 체육과는 달리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수업은 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도덕, 과학, 체육, 사회 교과의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학년별 연계를 파악하고 융합하여 수업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01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0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3월 30일